



# 홍건희의 진화 세밀함 키운다 자신감 커졌다

KIA 홍건희가 지난 22일 일본 오키나와 아카마 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 벤치서 맞은 가을야구 공 던지고픈 맘에 몸이 근질 스피드는 항상...간결한 동작으로 정교함 더할 것

KIA 우완 홍건희는 지난 22일 일본 오키나와 아카마 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연습경기에 등판해 10이닝을 소화했다.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는 예정되지 않았던 등판이었다. 올 시즌 KIA 마운드의 한 축으로 활약을 한 홍건희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김기태 감독은 홍건희·한승혁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캠프 연습경기에는 출전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팔스루잉 동작을 바꾸고 있는 홍건희는 중간 점검을 위해 연습경기에 등장했다. 작구로만 1이닝을 소화한 홍건희는 "피칭 연습과 타자를 놓고 공을 던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 차원에서 연습경기 나왔다"며 "만족도로 따지면 60% 정도다.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는 것을 생각하면 괜찮았다"고 평가했다. 변화를 감행하고 있는 이유는 더욱 안정되고 정교한 피칭을 위해서다. 홍건희는 "짧고 간결하게 팔을 올려서 던지려고 한다. 크게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 평소 스윙이 크고 팔 올라오

는 게 낫다. 그때 몸을 잘 잡아줘야 하는데 팔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구에 기록이 있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변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은 편하다. 이번 마무리 캠프의 목표와 과정이 더 구체적이고 간결해졌기 때문이다. 홍건희는 "지난해 마무리 캠프 때는 준비할 것도 많고 복잡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를 많이 뛰면서 좋았던 점과 부족했던 점이 확실해졌고 그만큼 생각하고 계획할 게 정리가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을 통해 홍건희가 얻은 결과와 속제는 방향성 유지와 세밀함 강화다. 투구 각도와 방향성에서 기록이 나왔다는 점은 올 시즌의 성과다. 하지만 세밀함이 부족했다는 자평이다. 그는 "올해 많은 기회를 받아서 행복했다. 하지만 확실한 선발이나 필승조 등 올 시즌 원가 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할 게 없다. 내가 더 잘해야 했다. 투수라면 당연히 승, 흠드, 세이브 타이틀에도 욕심이 난다. 올해는 타이

틀 운은 없었던 같다. 그 부분도 아쉬다"고 웃었다. 또 하나의 아쉬움은 끝내 오르지 못한 포스트시즌 마운드다. 홍건희는 "보기만 해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다. 한 점 싸움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다. 많이 긴장하고 보면서도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부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내 스스로 자신감이 생겼고 꼭 다음에는 공을 던지자는 각오도 했다"고 언급했다. 2016시즌은 지난해 마무리 캠프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홍건희는 이번 캠프도 독하게 치러내고 있다. 홍건희는 "올 시즌 스피드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스피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좋은 메커니즘으로 일정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트레이닝을 열심히 한 게 스피드로 이어졌다. 시즌을 치르면서 몸이 견고해졌다는 것도 느껴졌다. 지루하고 힘든 운동이지만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느꼈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있다.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지난 캠프보다는 몸의 피로도가 다르기는 하다. 부상 없이 캠프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키나와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2일(현지시간) 프랑스 모나코 루이 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 홋스퍼 FC와 AS 모나코 FC의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경기에서 손흥민의 드리블을 AS모나코 카밀 글리키가 태클로 저지하고 있다. 이날 토트넘은 AS모나코에 1-2로 패하며 1승 1무 3패(승점 4)를 기록, 조 3위에 그쳐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 1 대 1 찬스 놓친 손흥민

### UEFA 챔스 조별리그 선발 출전...토트넘, AS모나코에 1-2 패하며 탈락

손흥민이 65분간 뛰 토트넘(잉글랜드)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다. 토트넘은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모나코 루이 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17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5차전 원정 경기에서 AS모나코(프랑스)에 1-2로 졌다. 1승1무3패(승점 4)가 된 토트넘은 E조 3위에 그쳤다. AS모나코는 3승2무(승점 11)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토트넘은 이로써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에서 CSKA 모스크바에 승리하고, 2위 레버쿠젠(승점 7)이 지면 두 팀은 승점이 같아진다. 그러나 이 경우 두 팀간 대결에서 승점이 높은 팀이 16강에 올라가는데, 토트넘은 레버쿠젠에 1무1패로 열세이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UEFA 챔피언스리그보다 한

단계 낮은 유로파리그 진출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손흥민은 이날 선발 출전했으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전반 6분 만에 잡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웠다. 중앙선 부근에서 멀리 알리의 스투페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 1로 맞섰다. 그러나 골키퍼를 제지하려다 볼 터치가 걸리면서 득점에 실패했다. 전반 34분에는 다시 알리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박스 안 왼쪽 측면을 뚫었으나, 패스로 연결하지 못했다. 후반 14분 상대 골문 앞에서 날린 왼발 슈팅은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손흥민은 후반 20분 벤치트 안센과 교체됐다. 영국 통계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이날 경기 후 손흥민에 대해 팀 내에서 가장 낮은 5.73의 평점을 매겼다. 우고 요리스 골키퍼가 8.97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가운데 5점대는 에릭 다이어(5.85)와 손흥민뿐이었다. 토트넘은 전반 요리스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다. 전반 11분 내 준 페널티킥을 선방했고, 2분 뒤 두 차례 슈팅도 막아냈다. 전반 34분에는 AS모나코 발레르 제르망의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빗겨가면서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후반 3분 만에 실점했다. 페널티박스 안에서 AS모나코 벤자민 멘디의 크로스에 이은 지브릴 시디베의 헤딩슛에 선제골을 내줬다. 토트넘은 곧바로 실점을 만회했다. 4분 뒤 알리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이를 해리 케인이 성공시켰다. 그러나 1-1의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1분도 지나지 않아 AS모나코 토마 르마흐의 슈팅에 다시 골을 헌납하며 1-2로 패하고 말았다. /연합뉴스

## 삼성 최형우, 은퇴선수 선정 2016 최고의 선수

삼성의 중심타자로 맹활약한 최형우가 프로야구 은퇴 선수들이 선정한 2016 최고의 선수가 됐다.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이하 한은회·회장 이순철)가 23일 "오는 12월 8일 '2016 레전드 야구존 한국프로야구 은퇴 선수의 날' 행사에서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이 직접 선정한 '2016 최고의 선수상'을 시상한다"며 "주인공은 0.376의 타율과 31홈런, 144타점, 195안타, OPS 1.115를 기록한 최형우"고 밝혔다. 최형우는 올 시즌 타율 1위, 타점 1위, 최다안타 1위, OPS 1위 등 공격 전부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선택을 받았다. '최고의 타자상'은 뛰어난 타격과 함께 출루율 부분 1위에 오른 김태균(한화)에게 돌아갔다. '최고의 투수상'은 평균자책점 2위, 다승 3위에 오르며 소속팀 두산의 한국시리즈 2연패를 이끈 장원준이 받는다. 올 시즌 15승을 거두며 '중고 신인'의 위



력을 과시한 넥센 신재영은 '최고의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밖에 한은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톱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의 탄생과 프로야구단의 입성에 큰 공헌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야구전도사'로서 야구 불모지에서 야구 보급과 인프라 확대, 야구 재능기부활동 등을 하며 '야구를 통한 사랑 나눔'을 실천 중인 이만수 헬크파운데이션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는 서울 양재동 L-타워 6층 그레이스 홀에서 열린다. 레전드 야구존, (주)엔트리브 소프트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또 (재)한국의학연구소, The-K에다함상조(주), (주)필드테크,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바로본병원, 올림픽병원, 광주수완병원, 새마을휘트니스가 협찬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텍사스 추신수 1억 기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3년째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34)가 국내 스포츠 인재양성과 한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한다. 3년째 기부 활동을 펼친다"고 전했다. 추신수는 25일 서울시 중구 무교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를 방문해 1억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김남일, 최용수 감독과 한솔밥 중국 장쑤 농구 코치 합류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멤버인 '진공정수기' 김남일(39)이 최용수 감독이 이끄는 중국 프로축구 장쑤 농구의 코치로 합류했다. 김남일 측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 전화 통화에서 "최용수 감독의 러브콜을 받아서 장쑤 코치직을 맡게 됐다"며 "지난주부터 팀에 합류했다. 구단과는 7주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정식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2020년 도쿄올림픽 야구 준결승 없애기로

야구가 12년 만에 정식종목으로 부활한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야구 준결승을 치르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23일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도쿄 올림픽에서 야구 준결승을 치르지 않고 결승전과 동메달 결정전만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준결승을 없애는 것은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야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끝으로 올림픽 무대에서 사라졌다. 퇴출론자는 야구가 일부 국가에서만 치러지는 데다 경기 소요시간도 길고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올림픽에 대거 불참한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야구 인기가 높은 일본에서 열리는 2020년 올림픽에서 야구를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지만, 참가국을 기존 8개국에서 2개국 줄여 6개국으로 제한했다. 준결승을 없애는 방안 역시 올림픽 야구 일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풀이된다. WBSC 관계자는 "4위까지 금메달의 가능성을 남긴다면 1차 리그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6개 팀밖에 출전하지 않는 대회에서 준결승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당초 1차 리그를 2개 조로 나눠 각 조 상위 2개 팀이 준결승에 올라가 결승과 동메달 결정전 진출자를 가리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WBSC 주장이 관철되면 준결승 없이 각 조 1위 팀이 결승전을 치르고, 2위 팀이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연합뉴스